NC우승 비밀은? ‘수평적 팀 문화’ 한 몫

적임자로 4차전 선발이었던 송명기 지목해

KS 6차전 포수 양의지 투수 교체 ‘건의’ 적중

지난 24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KBO 한국시리즈 6차전 NC 다이노스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 우승을 차지한 NC 다이노스 이동욱 감독과 양의지가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명기는 몸 안 풀어요?”

2020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6차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7회. 수비를 마친 NC 다이노스 포수 양의지가 투수코치, 배터리 코치를 찾아갔다.

양의지는 8회 수비 때 빠른 공을 갖춘 투수가 투입되는 것이 낫겠다는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적임자로 4차전 선발이었던 송명기를 지목했다.

당시 NC는 4-2의 근소한 리드를 유지 중이었다. 남은 두 이닝을 막으면 창단 첫 한국시리즈 우승컵을 손에 넣을 수 있지만, 혹시라도 모를 7차전 승부를 고려해야 했다. 마이크 라이크라는 선발 카드를 이미 6회에 꺼내들었기에 송명기를 선뜻 내긴 쉽지 않았다.

양의지는 경기 후 당시 상황에 대해 “8회에 나올 투수가 애매했다. (김)진성이 형이 지쳐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이기고 있으면 내일이 없다. 다 쏟아 부어야한다고 생각했다. 감독님께 의견을 냈는데 명기가 잘 던져서 맞아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동욱 감독도 송명기의 투입을 고민하긴 했다. 김진성에게 한 이닝을 더 맡기는 것 역시 구상에 있었다. 두 가지 가정이 머릿속에서 계속 싸우던 중 양의지의 한 마디가 이 감독의 생각을 정리해준 것이다.

이 감독은 “양의지가 먼저 송명기 이야기를 묻더라. 왜냐고 물어보니 ‘빠른 공 투수가 던지면 좋겠다’더라. 김진성과 송명기 중 고민했었는데 포수의 이야기를 믿고 가기로 했다”고 떠올렸다.

결과는 NC의 바람대로 맞아 떨어졌다. 송명기가 8회를 무실점으로 막아준 덕분에 NC는 한 이닝을 더 지웠다. 마지막 9회를 마무리 원종현이 삼자범퇴로 처리하면서 NC는 꽁꽁 감춰뒀던 집행검을 꺼낼 수 있었다.

이 일화는 능력 있는 포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될 듯하다. 실제로 투구를 받고, 타자들을 유심히 관찰한 포수의 한 마디는 벤치의 고민을 단번에 덜어줬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대목은 이 감독과 NC 코칭스태프의 대처다.

선수 교체는 감독 고유의 권한인 만큼 그냥 흘러들었어도 될 일이다. 송명기가 난조를 보였다면 모든 비난은 감독과 투수코치에게 쏠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포수의 감을 믿기로 했고, 나아가 뒷이야기까지 공개하면서 그 공을 선수에게 돌아가게 했다.

자칫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는 긴박한 순간에 선수는 자신의 견해를 스스럼없이 말하고, 감독은 선수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였다.

NC의 창단 첫 우승에는 수년 간 켜켜이 쌓인 수평적 팀 문화도 분명 한 몫 했다.

김미희 기자

전북현대 유소년, 전라북도 축구협회장배 모두 석권해

U18 · U15 팀 4연패 달성…전 연령대 동반 우승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이 전라북도 유소년 축구를 또 다시 평정했다.

전북현대 유소년 U-18, 15, 12팀이 2020 전북교육감배 겸 전북축구협회장배 축구대회 연령대별에서 모두 우승하며 전라북도 유소년 최강자의 면모를 선보였다.

특히 U-18 전주 영생고(교장 이장훈)와 U-15 금산중(교장 박기남)은 지난 2017년부터 4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이 대회 4연패를 달성했다.

지난 21일 전라북도 소재 초·중·고 아마 축구팀들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전북 유소년 팀은 8강, 4강에서 전 팀 전승을 거두며 25일 결승전을 치렀다.

U-18 전주 영생고는 8강에서 고창북고, 4강전에서 새만금FC를 꺾었으며, 결승전에서는 전주공고를 상대로 2대1로 이기며 우승했다.

U-15 금산중은 이평FC와 군산시민U15를 물리치고 결승에 올라 완주중에 2대1로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U-12 팀은 8강에서 JLFC를 꺾고 4강에서도 JKFC에 무실점의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결승에 올라 조촌초를 상대로 4대2로 승리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U-18 전주 영생고 안대현 감독은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준 우리 선수들에게 정말 고맙고 아낌없는 칭찬을 보낸다”며 “성적뿐만 아니라 경기 내용도 만족한다. 우리 선수들이 이번 대회의 경험을 통해 더 좋은 선수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 시상으로는 최우수선수상에 U-18 이우연, U-15 서정혁, U-12 김현성이 올랐으며, 최우수지도자상에 U-18 안대현 감독, U-15 이광현 감독, U-12 박범휘 감독이 영예를 안았다.

김정환 기자

‘아르헨 축구전설’ 마라도나, 심장마비로 사망…향년 60세

아르헨티나의 세계적 축구선수 디에고 마라도나가 지난 1986년 6월 29일 멕시코 월드컵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의 승리 후 우승컵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뇌수술 퇴원 2주만에 자택서 별세

아르헨티나의 세계적인 축구 선수 디에고 마라도나가 25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60세.

BBC, AFP, AP 등 외신들은 마라도나가 이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위치한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마라도나는 뇌수술을 받고 퇴원한지 2주만에 숨을 거뒀다.

그는 이달 초 만성 경막하혈종 진단을 받아 수술대에 올랐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실은 3일간의 국가적 애도 기간을 선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르헨티나 축구협회는 트위터를 통해 마라도나의 사망 소식에 애도를 표했다.

마라도나는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이끈 축구 전설이다.

그러나 은퇴 이후 마약 복용, 알콜 중독, 비만으로 평탄하지 못한 시간을 보냈으며, 두 차례 심장마비를 겪는 등 건강 상태 역시 좋지 않았다.

뉴시스

‘축구의 신’ 마라도나, 그는 누구인가?

1986년 멕시코월드컵 우승 이끈 아르헨티나 축구 영웅

한국과도 인연…월드컵서 두 차례 감독 · 선수로 대결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 디에고 마라도나가 26일(한국시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60세.

마라도나는 한때 축구의 대명사로 불렸을 만큼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컸던 선수다. 1986년 멕시코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이끌며 대회 최우수선수인 골든볼을 수상했다.

그라운드 안팎에서 톡톡 튀는 기행으로 화제를 몰고 다니기도 했다.

마라도나는 1960년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에서 3남4녀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다. 가정형편이 좋지 않았다.

축구에 재능이 있다는 소문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맞았다. 만 16세였던 1976년 아르헨티노스 주니어스라는 팀에서 프로 데뷔전을 갖는다.

축구 천재의 서막이었다. 마라도나는 이 팀에서 1980년까지 5년 동안 100골 이상을 터뜨리며 잠재력을 뽐냈고, 1981년 아르헨티나 명문 클럽 보카 주니어스로 이적했다.

이어 1982년 스페인 명문 FC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었고, 나폴리(이탈리아), 세비야(스페인) 등 명문 구단에서 활약했다.

특히 팬들에게는 나폴리 시절의 마라도나가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탈리아 세리에A에서 두 차례 우승을 이끌었고, 유럽축구연맹(UEFA)컵(현 유로파리그)과 코파 이탈리아(FA컵)를 들어올렸다.

1984년부터 1991년까지 나폴리 유니폼을 입었는데 이 시기는 마라도나가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우승을 이끈 때다. 최전성기라는 평가를 받는다.

165㎝로 작은 신장이지만 탄탄한 몸에서 뿜어내는 에너지가 대단했고, 현란한 개인기와 돌파 능력을 자랑했다. 클럽 소속으로 총 588경기에 출전해 312골을 기록했다.

마라도나는 1986년 멕시코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이끌면서 국민적 영웅이 됐다. 1980년대 세계 축구의 아이콘이었다. 1977년부터 1994년까지 A매치 91경기에 출전해 34골을 터뜨렸다. 멕시코월드컵 8강전 잉글랜드와의 대결에서 나온 ‘신의 손 사건’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이 경기에서 마라도나의 손에 맞고 골이 들어갔으나 주심은 정상적인 헤더로 인정해 논란이 됐다. 당시 마라도나는 “내 머리와 신의 손이 함께 만든 골”이라고 돌려서 말했다.

기행이 많아 그라운드의 악동으로도 불렸다.

1994년 미국월드컵 도중 도핑 테스트에 걸려 하차했고, 1997년 은퇴 이후에는 마약, 알코올 중독 등으로 자주 구설에 올랐다.

한국과는 월드컵에서 두 차례 만났다. 우승을 차지한 멕시코월드컵에선 선수로, 2010년 남아공월드컵에선 감독으로 나서 태극전사들과 싸웠다.

멕시코월드컵에서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조별리그 1차전에서 만났다. 마라도나는 도움 3개로 아르헨티나의 3-1 승리를 이끌었다.

허정무(현 대전 하나시티즌 이사장)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마라도나의 전담 마크맨으로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정상적인 수비로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 다소 거친 플레이가 이어졌지만 마라도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 언론에서는 허정무의 플레이를 ‘태권 축구’라고 평했다.

공교롭게 24년 뒤인 남아공월드컵에선 마라도나와 허정무가 감독으로 출전해 지략대결을 펼쳤다.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 곤살로 이과인(인터 마이애미)를 앞세운 아르헨티나가 4-1 완승을 거뒀다.

사진은 1982년 6월 마라도나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스페인 월드컵 개막전 벨기에와의 경기에 출전한 모습.

마라도나의 후계자로 불리는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33·바르셀로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축구계와 모든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 매우 슬픈 날이다. 그러나 마라도나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떠났다고 해서 완전히 떠난 건 아니다”고 애도를 표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브라질의 영웅 펠레(80)도 “나는 좋은 친구를 잃었고, 세상은 전설을 잃었다”며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함께 공을 찰 수 있길 바란다”고 슬픔을 전했다.

뉴시스

피겨 ‘4회전 점프 완성?’ 유영, 시니어 그랑프리 6차대회 출격

4회전 점프는 아직…이번에는 트리플 악셀만

한국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간판 유영(16·수리고)이 2020~2021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시니어 그랑프리 6차 대회에 출격한다.

유영은 오는 27~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2020~2021 ISU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6차 대회 ‘NHK 트로피’에 출전한다.

시니어 그랑프리 시리즈는 매 시즌 6차례 열리지만 2020~2021시즌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차와 3차, 5차 대회만 치러졌다. 그나마도 대회 개최국 선수들과 인근 국가 선수들만 출전해 경쟁했다.

이로 인해 올 시즌 시니어 그랑프리 대회에 나서는 한국 선수는 유영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전망이다.

2019~2020시즌 트리플 악셀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자랑한 유영은 국내 피겨 여자 싱글의 간판으로 자리매김했다.

유영은 지난해 10월 2019~2020 ISU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2차 대회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고, 올해 1월 2020 로잔 유스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한국 선수로는 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수확했다.

지난 2월 서울에서 열린 ISU 4대륙 피겨선수권대회에서는 223.23점을 얻어 은메달을 땄다. 한국 선수가 4대륙 피겨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딴 것은 2009년 밴쿠버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피겨여왕’ 김연아 이후 11년 만이었다.

자신감을 충전한 유영은 올해 3월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세계피겨선수권대회를 대비해 담금질을 이어갔지만, 대회가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되면서 시즌을 일찍 마쳤다.

이번 여름 코로나19로 인한 2주 자가격리 기간을 감수하고 미국 콜로라도주 스프링스로 건너가 훈련하던 유영은 국내에 돌아온 뒤에는 거의 홀로 훈련을 이어왔다.

그러던 중 그랑프리 6차 대회에 초청되면서 올 시즌 첫 국제대회 출전길이 열렸다. 혼자 훈련하는데 한계를 느끼던 유영은 지난 10월23일 일찌감치 일본 교토로 이동해 하마다 미에 코치의 훈련 속에 담금질을 했다.

유영은 새 시즌 프로그램도 결정했다. 쇼트프로그램은 ‘아스테릭스 - 미션 클레오파트라’의 사운드트랙과 ‘이스탄불 그루브스’를 편곡해 사용한다. 프리스케이팅 곡은 ‘반지의 제왕’ 사운드트랙이다.

4회전 점프 훈련을 이어왔지만, 녹록치 않은 환경 속에서 훈련을 이어온 만큼 시즌 첫 대회에서는 4회전 점프를 뛰지 않기로 했다. 무리하면 부상이 따를 수 있어 트리플 악셀만 프로그램 구성요소에 포함했다.

유영이 매니지먼트사인 대홍기획 관계자는 “프로그램 구성은 지난 시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트리플 악셀을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시즌 2차 대회에서 딴 동메달로 김연아, 임은수(신현고)에 이어 한국 여자 선수로는 3번째로 시니어 그랑프리 메달리스트가 된 유영은 두 시즌 연속 메달에 도전하며, 유영의 메달 획득 가능성은 상당히 높으며, 출전하는 선수 12명 중 유영만 외국인 선수고, 나머지 11명은 모두 일본 선수다.

김민정 기자